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① 기도: 신년맞이 '다니엘 기도회' (금요일 새벽기도는 쉽니다)

일시: 24일(월) - 28(금) 시간: 오후 7시 30분 장소: 본당

월(24): 다니엘 1:8-10, 뜻을 정한 다니엘

화(25): 다니엘 1:11-16, 시험중인 다니엘

수(26): 다니엘 1:17-21, 지혜와 복을 받은 다니엘

목(27): 다니엘 2:8-16, 세 친구와 다니엘

금(28): 다니엘 2:17-23,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

② 모임: 1부 예배 후 남·여 선교회 임원 모임이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③ 월례회: 다음 주 1부 예배 후 2 여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④ 설문: 성전 건물 매입에 관한 설문지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알림: 2011년 달력과 성탄 선물, 올해의 말씀을 받지 못한 성도는 예배 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보리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국내 선교지

▷ 결식자 봉사
▷ 밀알장애우 봉사



1월 교회일지

신년주일:

1월 2일 (주일)

City Mission 섬김:

1월 8일 (토요일)

한주간 저녁기도회:

1월 24-28일

남여선교회임원모임:

1월 23일 (주일)

교역자 소식

사임: 김중환 목사 (양의 문 교회 담임으로)



갈보리 성경 100+ 읽기 : 129독 고대아권사

갈보리 교회 성경읽기는 2011년에도 계속됩니다.

1월 예배담당 안내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1부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안내	주방봉사
2일	유승재	김순자	없음	임혜자/오지영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인치혁/최봉수	정희자/한상순/김제연
9일	김영길	없음	정진택	임혜자/오지영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인치혁/최봉수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6일	정관영	노은숙	박계용	임혜자/오지영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인치혁/최봉수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3일	이광희	이규임	김정옥	임혜자/오지영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인치혁/최봉수	정희자/한상순/김제연
30일	고성일	이기중	강동호	임혜자/오지영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인치혁/최봉수	정희자/한상순/김제연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다니엘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세해를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2. 영, 육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자유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3.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4.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건강과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김중환, 심창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정관영, 최재학, 현석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협동장로	: 유승재
지휘	: 신경화
반주	: 박양규, 유지선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찾아오시는 길
Newton Rd, City, Grafton Rd, Mt Eden, Nugent St, Southern Motorway, Newmarket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1월 23일

주보 13권 4호

www.calvary.org.nz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68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양	반주자	
예배의 부름	에베소서 5:19-21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44장 (구 56장)	다함께
*성서교독	9 시편15편 (구 6)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84장 (구 56장)	다함께
대표기도	이광희장로	
성경봉독	요한복음 20:30-31, 21:1-15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예수생명	김중환목사
찬송	80장 (구 101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현석호 장로 2월 6일: 고성일 집사

지난주일통계 | 1부 132명 2부 7명 학생부 25명 아동부 13명 유아부 17명 총계194명

건축헌금
지난주: \$0.00
총계: \$589,433.00

주일2부예배

오후3시		
찬양	김중환목사	
기도	이규임권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19:1-10	인도자
설교	예수와 삭개오	김중환목사
찬송	80장 (구 101장)	다함께
광고	인도자	
축도	김중환목사	

다음주 기도: 이기중권사

수요일예배

오후7시30분		
찬양	청년찬양단	다함께
기도	강동호집사	
성경봉독	다니엘 1:11-16	인도자
설교	시험중인 다니엘	이태한목사
찬송	342장 (구 395장)	다함께
광고	인도자	
주기도	다함께	

수요일예찬 기도: 장연직집사
다음 수요일기도: 박제용장로

담임목사 칼럼

‘좋다’ 는 아쉬움

단기선교를 위해 다른 나라에 1주 혹은 2주 정도씩 머물기는 했으나 8년 가까운 시간을 한 곳에 머물기는 뉴질랜드가 처음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빼어난 자연 환경, 적당한 기후, 그래서 안식을 위해 오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못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부러워하며 찬사를 받는 이곳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좋다’ 는 의미가 정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만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이 수요일예배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졸공 되뇌어지는 것은 뉴질랜드가 가시적인 박해와 위협속에 살았던 초대교회 상황과 같은 현실은 아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은 어떤 ‘신앙적 박해와 위협’ 이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불성설이라고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곳의 ‘박해와 위협’ 은 초대교회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를 바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외부적인 박해와 고통을 받아 신앙이 허물어졌고 위협에 노출 되었다면 뉴질랜드는 외부적인 환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다’ 라는 그 의미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앙을 와해 시킬수 있는 원인 제공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요일예배를 안 가는 것이 이상하지만 여기서는 가는 것이 특별합니다. 한국에서는 새벽기도를 안 가는 것이 부끄럽지만 이곳에선 새벽기도회에 간다면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오해를 받을 정도입니다. 한국에선 그래도 신앙의 열심이 있었는데 이곳에 오면서는 ‘자유와 누림’ 에 치중하다 보니 그 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 무너짐을 무너짐으로 보기 보다는 으레 한국하고 다르니까, 현실에 적응해야지 하는 아전인수격의 합리화로 여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와 바람이 모자를 쓰고 가는 사람을 보며 누가 먼저 벗길수 있는가 시합을 할 때 바람이 불수록 모자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모자를 꼭 붙였지만 해가 점점 더워지니까 스스로 모자 벗어버린 것처럼 뉴질랜드가 주는 환경의 안락함과 안주에 신앙의 모자를 다 벗어던져버리는 그래서 이곳이 바로 모양과 상황만 다를 뿐 바로 로마시대의 위험이 곳곳에 침투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시대와 지금은 너무나 다르다, 그때와는 결코 비교 할 수 없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꼭 그 시대처럼 살아야 한다는 절대성이 어디 있는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당위성은 또한 어디서 찾을수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달리 처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것 인데 그 삶의 근거를 때와 상황에 따라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 습니까?

‘좋다’ 는 것이 내 신앙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아닌지, 신앙생활에 거침돌이 없는 현실이 오히려 그나마의 내 영적 상태를 소리없이 갇아먹는 바이러스가 아닌지 살펴보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